

청년층 취업동기 변화 추이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청년층(15~29세)의 취업사유 변화추이를 제시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정규직 취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의 취업동기를 비교해 봄.
 - 2014년 기준 절반 이상의 청년층 정규직은 만족스러운 근로조건과 일자리의 안정성을 취업선택의 주된 사유라고 응답했던 반면, 비정규직인 청년층은 경력을 쌓아 현 직장에서 이직하고자 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청년층 취업사유 변화추이

(단위 : %)

	정규직					비정규직				
	2006	2008	2010	2012	2014	2006	2008	2010	2012	2014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만족	35.9	30.0	32.1	36.9	35.0	24.7	20.5	21.9	22.9	20.8
안정적 일자리	26.1	29.1	29.6	29.5	27.8	15.8	12.4	11.4	8.9	8.9
경제적 이유	8.1	10.1	10.2	9.4	11.6	12.2	13.7	14.6	15.8	15.9
분야·전공·경력 등과 맞는 일자리 부족	10.0	10.0	11.3	8.7	10.3	12.2	13.0	12.7	11.0	12.3
이직을 위해	17.0	18.2	14.4	13.4	13.5	28.4	34.2	32.6	35.4	37.0
그 외 기타	2.8	2.6	2.4	2.1	1.7	6.8	6.2	6.8	6.1	5.2

주 : 취업사유에는 1)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 만족, 2) 안정적인 일자리, 3) 경제적 이유, 4) 분야·전공·경력 등과 맞는 일자리 부족, 5) 이직을 위해(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혹은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6) 그 외 기타(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중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등)으로 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 청년층 정규직의 취업동기를 살펴보면, 만족스러운 근로조건과 일자리의 안정성이 취업동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정규직이더라도 경력을 쌓거나 학업 및 학원 수강 등을 통해 이직을 하기 위해 현 직장을 선택했다는 답변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0년 중반에 비해 최근 들어 경제적 이유에 의해 정규직을 선택했다는 청년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2006년 8.1%에서 2014년 11.6%로 3.5%p 상승).

- 비정규직을 선택한 취업동기를 살펴보면, 경력을 쌓아 현 직장에서 이직하기 위해서나 경제적 곤란으로 혹은 분야·전공·경력 등과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현 직장을 선택한 경우가 지난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체 사유의 65%에 이릅니다.
 - 정규직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 직장 선택사유가 근로조건 만족성 혹은 일자리의 안정성에 있다고 응답한 청년층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 요약하면 정규직의 경우 근로조건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된 취업사유였다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경제적 곤란이나 분야·전공·경력 등과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현 직장을 선택하였고 현 직장이 이직을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인식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KLI**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